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6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19일 (음력 8월 30일) 목요일



전대미문의 취소운동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승인이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운동에 개입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우파단체를 조종해 김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편지를 노벨위원회에 보내도록 하면서 국정원 예산까지 집행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원 전 원장 등 지휘부에 김 전 대통령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친전 형식으로 올렸다. 보고서는 '자유주의진보연합'이라는 우파단체를 조종해 김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사항을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공작은 현실화했다. 자유주의 진보연합 최초 대표인 그해 3월9일 게리 르네스타트 노벨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라는 영문 서한을 보냈다. 관련 인사들의 속쇄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옛 광주교도소 5·18행불자 암매장 현장조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5·18기념재단, 5월 단체 대표, 제보자 등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안에서 5·18 당시 암매장 장소로 추정되는 곳을 살펴보고 있다. 제보자들은 "5·18 당시 공사장비를 이용해 교도소 안팎에서 땅을 파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옛 광주교도소 안팎의 암매장지 발굴 작업을 위한 현장 조사가 18일 시작되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행불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7년 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된 5·18 행불자는 모두 82명. 이 중 6명만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시신을 찾았다.

5월 단체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5·18 행불자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8년간 멈춰선 암매장지 발굴

시는 지난 1997년부터 5·18암매장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그해부터 2009년까지 모두 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9곳에 대해 세 차례 발굴 작업이 진행됐으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중복된 12곳

37년동안 공식 인정 행불자 82명 중 6명만 시신 찾아 5월 단체 "마지막 기회일지도...진상조사 이뤄져야"

발견되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3공수여단과 20사단 병력들이 주둔했던 곳이다. 5·18 직후 교도소 관사 뒤에서는 8구의 주검이 암매장됐다가 발견됐다. 교도소 앞 언덕에서는 시신 3구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제2·3의 암매장지 발굴도 추진

기념재단은 화순 너릿재 인근과 제2수원지 상류에 대한 암매장지 발굴 작업도 올해 내 추진할 예정이다.

너릿재 인근은 '5·18 직후 대낮에 군인들이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해 마태 자루를 묻고 있었으며 자루 밖으로 나와 있는 시신의 머리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암매장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도 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와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등에 따르면 7공수는 1980년 5월22일 너릿재 터널 입구에서 2.5 트럭에 총을 쏘아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연행했다. 하지만 연행자와 사망자의 신원과 행방은 여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2수원지 상류도 7공수가 주둔했던 곳이다.

◇"제대로 된 행불자 진상 조사 필요"

지난 1989년 1월 광주 동구 녹동마을 인근 일명 '부엉산' 기슭에서 발견됐던

유골은 사실상 5·18 이후 발견된 유일한 행불자다.

하지만 사망 당시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녹색 계열의 체크무늬 양복비지, 흰색 남방셔츠를 입었으며 금니를 하고 있었던 20대 후반의 남성은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의 유골이 전남대 법의학교실에 보관 중이며 같은 곳에 5·18행불자 130가족, 295명의 DNA가 보관돼 있지만 유전자 대조 작업을 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무명열사 5기도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엄군이 5·18 이후 광주에서 '암매장지 발굴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 1980년 6월2일 작성된 전교사 작전일지에는 20사단 61연대 수색대대가 '시체 1구를 발견하였으나 많이 부패되어 더 이상 파보지 못하고 가매장'이라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사실상 암매장이 더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군의 특성상 지시와 보고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군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행방불명자들과 관련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보해양조 장성 생산본부 앞 지하암반수 인기

우라늄 생수 논란 후 2배 증가

'우라늄 생수' 논란으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장성군 보해양조 생산본부 앞 지하암반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보해양조측에 따르면 '우라늄 생수' 논란이 제기된 이후 장성 생산본부 앞 음용수대에서 지하 233m 암반수를 때거려

는 소비자들 사이 크게 늘고 있다.

평소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 수준에 그쳤으나 '우라늄 생수' 보도 이후 2배 가량 늘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직접 찾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에 의뢰해 장성 생산본부에서 사용

하는 암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우라늄 성분이 0.2ppb 이하로 검출됐다"며 "먹는 물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미량으로, 소주 원료가 되는 지하 암반수의 채취지점이 우라늄 청정지역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최근 일부 생수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계열사가 생산한 생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견고 싶은 황룡강!

장성황룡강 2017 노란꽃잔치

10.13.~10.29. 장성군 황룡강 일원

개막식 10.13 (18:00) 장성공설운동장

쿠폰을 구매 하셔서 할인권 6매, 시식권 1매, 합인혜택 받으시고, 칼라TV 당첨의 행운을 잡아 보세요!

주최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옐로우 시티 Yellow City 장성군

제1회 백양 단풍축제

2017.10.27~10.29

장성 백암산·백양사 일원

군민노래자랑 10.26 (18:00) 공설운동장

컬그룹 "엘리스" 등 초청가수 출연

주최 및 주관 | Jangseong 장성군 장성군축제위원회

후원 |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